



도민 신뢰 속 의정 가치창조 구현

제10대 전북도의회는 지난 4년간 도정 및 교육행정을 견제하고 대안을 제시하며 도민의 신뢰 속에 의정의 가치창조를 구현했다. 의원들은 전문성 확보를 통한 각종 조례 제·개정으로 위민의정을 펼쳤다. 또한 전북 몫을 찾기 위해 집행부와 함께 도민의 뜻을 전달했다. 지난 4년간의 의정활동을 들여다본다. /편집자 주

▲도정 및 교육행정 기준 제시... 민생 조례 제·개정 활발

제10대 도의회는 민생관련 조례 제·개정 및 행정사무감사, 현장의정활동을 펼치며 도정과 교육행정의 기준을 제시하는 감시와 견제 역할에 충실했다. 특히 전북 몫을 찾는 일이라면 집행부와 협력하며 앞장섰다.

지난 4년간 민생 관련 의원 발의 조례 제·개정 건수는 고령친화도시 조성 지원 조례를 비롯해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지원, 지역서점 활성화, 중소기업 수출 진흥,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 지원,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보행환경 개선 조례 등 모두 383건으로 의원 1인당 평균 10건에 달한다.

▲현장에서 답을 찾다... 상임위원회 각종사업현장 누벼

도의회는 현장에서 도민의 다양한 요구사항을 찾기 위해 상임위원회별 활발한 현장의정활동을 펼쳤다.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김종철)는 인사와 조직, 예산, 대외협력 등 도정 핵심 업무는 물론 도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소방업무를 맡고 있다. 위원회는 도내 다중이용업소 소방시설 점검과 119안전체험관, 세계잼버리 새만금 유치 지원 등 현장의정활동을 전개했다. 지난 4년간 89건의 조례를 제·개정했으며 전라북도 출연기관 등의 장애에 대한 인사검증 조례는 상위법 위반으로 대법원 소송에서 패소해 폐기됐지만 '출연기관 인사검증을 위한 TF' 결성 합의를 이끌어 내는 성과도 거뒀다.

환경복지위원회(위원장 최훈열)는 여성 긴급전화 1366 전북센터와 노인복지회관, 장애인복지 현장, 건설폐기물 보관시설 실태파악 등 전북도의 친환경 정책 및 이동 청소년, 노인, 여성, 장애인 등 소외계층의 복지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을 전개했다. 지역서점 활성화 조례 등 84건의 조례 제·개정, 새만금사업 지역건설업체 우대기준 마련 등 13건의 건의·결의문을 채택해 국회와 정부에 요구했다.

농산업경제위원회(위원장 강용구)는 LMO 유제 대체지 현장조사와 농산물 유통 가공 사업장, 탄소산업 현장을 방문해 역점사업 성과 도출을 주문해 왔다. 4년간 60건의 조례 제·개정을 통해 서민경제 지원 뿐 아니라 산업과 농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에 기여했다. 소상공인 및 농민,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정을 살피고 현장을 방문하는 등 발로



양용모 도의회 의장

도정·교육행정 기준 제시 전북 몫 찾기에 집행부와 협력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이용 지역서점 등 383건 조례 제·개정 상임위 현장의정활동 활발

뛰는 의정활동을 펼쳤다.

문화건설안전위원회(위원장 한완수)는 지역건설경기 활성화와 재난상생실 및 경보통제소, 민방위 대피시설, 도로확포장 공사 안전관리 실태,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현장점검 등에 주력했다. 제10대 의회 지난 4년 동안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부터 유니버설디자인기본조례, 보행환경 개선조례,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조례 등 모두 61건의 조례 제·개정으로 사회적 약자를 위한 입법 활동 역시 활발했다.

교육위원회(위원장 이혜숙)는 교육학에 행정에 관한 전반적인 추진사업을 견제 및 감시하고 교육협력 및 인사특별위원회 등을 구성, 교육수요자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의정활동에 매진했다. 교육위는 남검출 우레탄 학교 운동장을 방문해 직접 확인했고, 개교 예정학교 현장을 방문하며 학생들이 안심하고 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에 앞장섰다. 또한 지난 4년간 89건의 조례를 제·개정했다.

▲주요 현안 건의·결의문 채택... 지역 현안 적극 대처

도의회는 또 주요 현안이 발생할 때마다 도민의 불이익 해소와 전북 몫을 찾기 위해 의회차원의 건의·결의문을 채택해 청와대와 국회, 정부 부처에 전달, 도민들의 결집된 목소리를 전달했다.

지난 4년간 63건의 건의·결의문을 채택했으며,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전북 이전과 KTX증편 및 막차시간 연장운영, 고향기부제 도입 등은 대표적인 성과다.

아울러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와 전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전국균형발전 지방의회협의회, 호남권광역의회의장단협의회에 적극 참여해 이 같은 현안을 뒷받침했다.

이밖에도 일자리문제와 기업유치, 농업업 정책, 새만금 개발, 학교안전 등 도정과 교육행정의 주요 현안에 대해선 도지사와 교육감을 상대로 질문하며 도민의 궁금증 해소에 주력했다.

도의회는 외교정책활성화연구회, 다문화가족복지정책 연구모임, 마을활성화연구회, 청년정책연구회, 사례비교를 통한 문화관광재단 활성화방안 연구회, 조례개발을 통한 지역발전연구회, 예산정책연구회 등 다양한 주제의 연구모임을 구성해 세미나와 벤치마킹, 현지방문 등을 통하여 주요 현안 사업에 대한 대안을 제시했다.

양용모 의장은 "제10대 도의회는 지난 4년, 도정과 교육행정을 견제하고 감시하며 대안을 제시하는 생산적인 의정활동으로 의정의 가치창조를 구현해 왔다"며 "아울러 도민을 대변하며 전북 몫을 찾기 위한 의정활동에 모든 노력을 기울였다"고 밝혔다.

이어 "새롭게 출범하는 제11대 도의회에서도 민의를 헤아리고 주요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수준 높은 공교육 활성화를 위한 의정활동에 매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양 의장은 또한 "의회와 의원의 권한과 위상은 목소리가 크거나 정당의 규모, 집행부 단체장과의 친화력이 아니다"며 "집행부 사업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지방분권시대를 맞아 단체장의 힘은 더욱 막강해 질 수밖에 없다"며 "제11대 도의회에서도 집행부 견제와 감시라는 고유기능을 더욱 강화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진성기자



1. 행정자치위원회
2. 환경복지위원회
3. 농산업경제위원회
4. 교육위원회
5. 문화건설안전위원회